

우천면(隅川面)

[위 치]

우천면은 동쪽으로 안흥면과 둔내면, 서쪽으로 횡성읍, 남쪽으로 원주시 소초면, 북쪽으로 갑천면과 각각 접해 있다.

[연 혁]

모내의 이름을 따서 우내면(隅內面)이라 하다가, 우천면(隅川面)으로 고쳐서, 정암, 두곡, 상수남, 중수남, 하수남, 법주, 백달, 오원의 8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청룡면의 남산, 생운, 조곡, 추동의 4개 리를 병합하여 12개 리를 관할하였다.

1940년 상수남리를 우항리로, 중수남리를 양적리로, 하수남리를 문암리로 각각 개칭하여 불렀으며, 197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정암리, 조곡리, 생운리, 남산리가 횡성읍으로 편입되고, 안흥면 정금리, 산전리, 하궁리, 용둔리, 상하가리, 하대리, 상대리가 우천면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두곡리(杜谷里)

마을 지형이 똑같이 되었으므로 독실, 또는 두곡(杜谷)이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밤벼루, 피나무땀을 병합하여 두곡리라 하였다. 예전에 우천면사무소가 이곳에 있었다.

가재골 [골] 독실에 있는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절터골’이라고도 한다.

감박산 [산] 독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사냥을 할 때 길목이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더드래기 [골] 독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돌이 많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두실 [마을] → 독실

독실 [마을] 두곡리 3,4,5,6반에 속하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지형이 뚝 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실’이라고도 한다.

뒤골 [골] 밤벼루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막재 [고개] 독실에서 용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밤베루 [마을] 두곡리 1,2반에 속하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①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뱀고개(蛇峴)라 하던 것이 뱀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밤”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뱀베루’라고도 한다.

뱀베루 [마을] 밤베루

병골 [골] 흑니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산지당골 [골] 독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상골 [골] 독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세 명의 재상이 나올 명당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자리 [들] 하천을 중심으로 밤베루쪽에 있는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독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재골’이라고도 한다. 이 골을 넘어가면 상하가리가 나온다.

피나무땀 [마을] 두곡리 7반에 속하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피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루마재 [고개] 참새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가 길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새골 [골] 밤베루 노인회관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유난히 참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초당골 [골] 독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 골 초입에 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옥마을 [마을] 밤베루를 달리 부르는 마을명으로, 1980년대 한옥집들이 많이 생기고 난 후 외지인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할미골 [골] 독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양적리 구룡골 밑에 있는 골짜기다.

흑니골 [골] 참새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문암리(文岩里)

무네미 아래쪽이 되므로 아래무네미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골말, 소라니, 노적바우땀, 다락골, 버덩말, 샘소골을 병합하여 하수남리(下水南里)라 하다가 1940년에 문암리로 고쳤다.

골말 [마을] 문암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짜기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적바우 [바위] 배나무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 모양이 노적을 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능골 [골] 자작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락골 [마을] 문암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논배미가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댕데이골 [골] 골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막자골 [골] 골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배나무골 [마을] 문암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배나무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버덩말 [마을] 문암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버덩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소골 [골] 골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샘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수동’이라고도 한다.

소라니 [마을] 문암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예전에 연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③지형이 소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골 [골] 소라니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자작고개 [고개] 정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개인이 길을 닦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자작자작 걸어가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수동(泉水洞) [골] → 샘소골

핏발재 [고개] 정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일제 때 산등을 끊었을 때 피가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달리(白達里)

큰 산 밑에 마을이 있다고 박달, 또는 백달, 한다리, 백교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역골, 안땀, 거리땀을 병합하여 백달리라 하였다.

거리땀 [마을] 도로 옆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달리 1반에 해당된다. 마을이 길가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내미 [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천지개벽할 때 배가 넘어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달리저수지 [저수지] 안땀에 있는 저수지를 가리킨다.

안땀 [마을] 군부대가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달리 2반에 해당된다. 마을이 안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역골 [마을] 백달리 3반에 해당되는 마을로 예전에 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밭을 갈다보면 기와가 나온다.

탑골 [마을] 예전에 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도 논에 탑을 세웠던 기초가 남아 있다고 한다.

횡성한다리 [마을] → 백달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접해 있는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한다리와 구분해서 불리는 이름이다.

법주리(法周里)

치악산 구룡사의 법사가 마을에 와서 불법을 폈다 하여 법주라 한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모시골, 새말, 빠라골, 승지골, 원바우를 병합하여 법주리라 하였다.

가메골 [골] 덕고개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거북바우 [바위] → 소세바우

공수배루 [산] 새말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구만이 [마을] 법주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이곳에서 참깨 구만석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넘법주 [마을] 법주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고개 너머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누룬고개 [고개] 송지골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암리 누룬으로 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덕고개 [고개] 현재 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뒤골 [골] 바라골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소골 [마을] → 모시골

모시골 [마을] 법주리 5, 6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마을에 소 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소골이라고도 한다. ②예전에 모시를 많이 재배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③예전에 명주실 한 타래가 다 풀려도 끝이 닿지 않는 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라골 [마을] → 빠라골

뱅이골 [골] 조롱고개 맞은 편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범바우뜰 [바위] 시랑골 안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마을에서 처녀를 물어다가 이 바위에서 잡아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빠라골 [마을] 법주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중이 초당모퉁이에다 바랑을 내려 놓고 쉬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지형이 바라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막재 [고개] 뒤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와 경계에 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새말 [마을] 법주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형성이 다른 곳보다 늦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세바우 [바위] 모시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 위에 얽혀 있는 바위가 소 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6.25 때 바위가 깨졌으며, 현재 마을 아이들은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거북바위’라고 부르고 있다.

송지골 [마을] 법주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유래는 모른다.

시랑골 [골] 모시골 뒤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랑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땀 [마을] 법주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바우 [바위] 예전에 물로 인하여 분쟁을 할 때, 원이 이 바위에 앉아서 조정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마을] 법주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롱고개 [고개] 새말에서 넘법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진결보 [바위] 소세바우 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전설에 의하면,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서 귀찮고 힘들어진 며느리가 하루는 탁발하러 온 중에게 손님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을 묻자, 바위를 깨면 된다고 하여 바위를 깨자 피가 피가 나왔다고 한다. 그 후 그 집은 망했다고 한다.

초당모텡이 [터] 빠라골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함작고개 [고개] 넘법주에서 원주 학곡리로 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산전리(山田里)

원래 안흥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샘대이, 노장골, 저전동(楮田洞), 너분바위, 우각동을 병합하여 암곡산(岩谷山)과 저전의 이름을 따서 상산전리와 하산전리로 나누었다가, 1941년에 합하여 산전리로 하였다. 1973년 행정관할구역 조정으로 우천면에 편입되었다.

가재무덤이 [마을] 산전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예전에 마을 입구에 무덤이 있었는데, 재물을 묻어 둔 무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광산이 있었던 관계로 재물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재무덤이골 [골] 가재무덤이 원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골 초입에 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산골 [골] 가재무덤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은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암(廣岩) [마을] → 너렁바우

구옹골 [골] 닥밭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장골 [골] 닥밭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너렁바우 [마을] 산전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넓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암이라고도 한다.

노쟁이 [마을] 산전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늪은 중이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늪은 총각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녹하리 [골] 설통바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세가 사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닥밭골 [마을] 산전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닥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닥밭골 [골] 닥밭골의 원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닥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닥밭골과 속닥밭골이 있다.

돼지뺨골 [골] 가재무덤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뺨을 놓아 돼지를 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골 [골] 양지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둔지 [마을] 산전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골 [골] 닥밭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골 사이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새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샘댕이 [마을] 산전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샘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당촌’이라고도 한다.

서낭당골 [골] 가재무덤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설통바우 [골] 닥밭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리봉 [산] 닥밭골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수리가 마을에서 닭을 낚아채어 이 산에서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수리봉과 작은수리봉이 있다.

숫가마골 [골] 샘댕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스무전골 [골] 닥밭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스무전골과 작은스무전골이 있다.

승지골 [골] 닥밭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감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우새골 [골] 가재나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돌이골 [골] 가재무덤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길이 골을 안고 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마을] 산전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용네미 [재] 닥밭골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고개로 용이 넘어 구룡사로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각데기 [마을] → 우복골

우박동이 [마을] → 우복골

우복골 [마을] 산전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예전에 중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골이 깊고 으스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박동’ 또는 ‘우각데기’라고도 한다.

절터골 [골] 샘당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절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당촌(泉塘村) [마을] → 샘당이

청춘의골 [골] 가재무덤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마을에서 젊은 색시를 물어다가 이 골에서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야골 [골] 닥밭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난리 때 피난을 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호박고개 [고개] 양지말에서 우복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상대리(上大里)

원래 안흥면의 지역으로, 대미원(大美院) 위쪽이 되므로 웃대미원, 줄여서 웃대면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실, 메내골, 중대미원, 역밭을 병합하여 상대미원리(上大美院里)와 중대미원리(中大美院里)로 나누었다가 1941년에 두 구역을 합하여 상대리라 하였다. 1973년 행정관할구역 조정으로 우천면에 편입되었다.

개자리터 [마을] 양지말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 사는 사람이 자신이 키우던 개와 함께 문막으로 소금을 사러 갔다가 개가 문막에서 새끼 네 마리를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개가 밤새도록 자기 집으로 이 새끼를 날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매골 [골] 수명태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곰이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용골 [골] 수리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귀뚜레골 [골] 산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대추나무골 [골] 신배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대추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이라고도 한다.

덕고개 [고개] 뱀골 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고개를 넘어가면 하대리 구름이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매둥지골 [골] 고매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 매가 자주 앉아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메내골 [골] 상대리에서 소사리로 향해 있는 큰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 예전에 이 골짜기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을 때 큰 일없이 잘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 예전에 이 골짜기에 면화를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면화골’이라고도 한다.

메내재 [고개] 메내골 삼실에서 소사리로 넘어가는 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메내골에 있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면화골 [골] → 메내골

문진바위 [바위] 메내골 초입에 있는 큰바위와 작은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물떨어지는골 [골] 새반대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락동’이라고도 한다.

바람부리 [마을] 역발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나무골 [골] 메내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골 [골]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뱀처럼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당골 [골] 경로당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신배나무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추나무골이라고도 한다.

산막골 [골] 덕고개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삼실 [마을] 개자리터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세 가구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반대골 [골] 귀뚜라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초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풀을 베어다가 지붕을 했다고 한다. 역새를 새반대라 한다.

서낭당골 [골] 석애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애골 [골] 승냥재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바우골 [골] 이 골짜기에 있는 바위가 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수락동 [골] → 물떨어지는골

수리터골 [골] 물떠러지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수리가 새끼를 처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명태골 [골] 메내골로 접어들면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승냥재 [고개] 고매골 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고개에서 승냥이가 자주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원2리와 통한다.

신배나무골 [골] 서낭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큰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땀 [마을] 바람부리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마을] 안땀 위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역밭 [마을] 메내골 첫 머리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①예전에 역의 받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역적이 이곳에서 땅을 구입해서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수바우 [바위] 고속도로 공사로 바위가 없어졌다. 바위 집채처럼 커다랗고, 바위에 말자국과 장수가 오줌을 누어서 노랗게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정당골 [골] 산막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하가리(上下佳里)

본래 안흥면의 지역으로, 가자골 또는 가좌곡(佳佐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웃가자골, 아래가자골, 구렁말, 달구지, 등지, 바일, 새말, 용내를 병합하여 상가좌리(上佳佐里)와 하가좌리(下佳佐里)로 나누었다가, 1941년에 두 구역을 합하여 현재와 같이 상하가리로 했다. 1973년 행정관할구역 조정으로 우천면에 편입되었다.

가는골 [골] 가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좁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래골 [골] 가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가래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재울 [마을] 상하가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마을이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천석꾼이 살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감박산 [사] 솔안말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복을 내리는 산이라고 해서 붙여진 름이다. ‘감복산’이라고도 한다.

감복산 [산] → 감박산

곳집고개 [고개] 구렁말에서 솔안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곳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렁말 [마을] 상하가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구덩이 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촌’이라고도 한다.

농안 [골] 솔안말에 있는 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왕의 태를 묻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달고지 [마을] 상하가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정금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하대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곳에서 합수가 되어 산이 꽃이를 이루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고지’, ‘달구지’ 또는 ‘떡달구지’라고도 한다.

달구지 [마을] → 달고지

독실고개 [고개] 구렁말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두곡리 독실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뒤골 [골] 구렁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떡달구지 [마을] → 달고지

못촌골 [골] 가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일 [마을] 상하가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예전에 배씨들이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배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일’이라고도 한다.

배일 [마을] → 바일

복가산 [산] 보를 막기 위해서 이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석 [비] 가재울에 있는 비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의 살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 한다.

산막골 [골] 복가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막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산막골과 작은산막골이 있다.

새말 [마을] 상하가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형성이 다른 곳보다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당고개 [고개] 가재울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고개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당거리 [터] 구렁말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물은골 [골] 가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병들어 죽은 소를 묻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안말 [마을] 상하가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장골 [골] 달구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송장을 묻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고개 [고개] 산전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앞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짓말 [마을] 가재울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둔골 [골] 능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낮에도 어둡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어영골’이라고도 한다.

어영골 [골] → 어둔골

옥내 [마을] 상하가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지형이 ‘玉女彈琴形’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월고지 [마을] → 달고지

응달말 [마을] 가재울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즌쟁이 [들] 논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등산 [산] 가재울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등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촌 [마을] → 구렁말

양적리(陽赤里)

중수네미, 또는 중수남리(中水南)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땡땡이구렁, 동돌미, 밤나무골, 붓둔지, 진고개, 청덕골을 병합하여 중수남리(中水南里)라 하다가, 1940년에 양적산(陽赤山)의 이름을 따서 양적리라 하였다. 해가 잘 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양지기라고도 한다.

가마봉 [산] 청덕골 정상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마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구리바위 [바위] 밤나무골 비석거리 옆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은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그 모양이 달라졌지만, 원래는 두꺼비 모양을 한 바위가 문암리 노적바위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거북바위 [바위] 동돌미바위 옆에 있던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경지정리 하면서 없어졌다.

구용골 [골] 아랫양적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소 구유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꿩논 [논] 예전에 꿩을 팔아서 논 여덟마지기 반을 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돌미바위 [바위] 바위가 동그랗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바위 아래로 호랑이 눈과 같은 것이 두 개 있는데 문암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며, 이 두 눈을 호랑이 눈이라 부른다.

밤나무골 [마을] 양적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골 [골] 아랫양적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벌통배기 [터] 진고개 옆 바위가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벌통을 많이 놓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붓둔지 [마을] 양적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석거리 [터] 밤나무골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비석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골 [골] 붓둔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사이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솔무정 [터] 아랫양적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가운데 소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정자각이 있다.

아랫양적 [마을] 양적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골 [골] 아랫양적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 중간에 있는 바위에서 약물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기뜰 [뜰] 마을 앞에 있는 넓은 들을 가리킨다.

오리배미 [논] 논에 항상 물이 고여 있던 관계로 오리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웅덩배미’라고도 한다.

웃물골 [골] 약물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웃오른 사람이 이 물로 씻고 먹으면 웃이 없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물골이라고도 한다.

우물골 [골] 약물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무골’이라고도 한다.

웃양적 [마을] 양적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웅덩배미 [논] 논에 항상 물이 고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배미’라고도 한다.

장구배미 [논] 논이 장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재두리뜰 [뜰] 진사래 옆에 있던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들이 약간 언덕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땀 [마을] 마을회관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양적리 중앙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고개 [고개] 밤나무골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적리와 우항1리 경계가 된다. 예전에 이곳에 진을 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사래 [논] 웃양적에 있던 논을 가리키는 것으로, 논두렁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경지정리로 인하여 없어졌다.

청덕골 [골] 붓둔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웃물이 나온다고 한다. 현재 공단이 들어섰으며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오원리(烏原里)

조선시대 때 오원역(烏原驛)이 있었으므로 오원이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통골, 논골, 개미재, 덕가래, 양지말, 줄봉, 옷거리, 새터, 음달말을 병합하여 오원리라 하였다.

[오원1리]

골땀 [마을] 오원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골짜기에 접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끌터 [터] 예전에 산에서 나무를 해 가지고 올 때, 산이 가파라서 나무를 끌고 내려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끌터와 작은끌터가 있다.

덕가동 [마을] → 덕가래

덕가래 [마을] 노인회관이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덕을 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가동', '덕가촌', '덕원'이라고도 한다.

덕가촌 [마을] → 덕가래

덕원 [마을] → 덕가래

돌재 [고개] 고개에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기 [터] 예전에 산에서 나무를 해 가지고 올 때, 끌터에서 끌고 온 지게를 이곳에서 다시 지고 산을 내려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옷매기와 아랫매기가 있다.

바른골 [골] 골이 곧게 뻗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태난골 [골] 예전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옷사태골과 아랫사태골이 있다.

샘물등지 [터] 끌터가는 길에 있는 곳으로, 샘물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이바우 [바위] 이 바위에서 석이버섯이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섬바우 [바위] 바위가 섬을 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골 [골] 작은송골과 큰송골이 있으며, 골짜기가 송곳처럼 뾰족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땀 [마을] 현재 오원1리 1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들 [논] 마을 앞에 있는 논을 가리킨다.

움골 [골] 섬바우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피아골 [골] 이 골짜기에서 곡식을 심으면 피가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바우등 [바위] 바른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이 바위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장터골 [골] 예전에 이 골짜기에서 화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채봉 [산] 덕가래 뒤에 있는 산을 덕고산이라고 하는데, 산 정상에 상여의 화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원2리]

가마골 [골] 논골을 가며 왼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예전에 이 골에서 숯을 구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이 골짜기를 들어가면 가마를 걸어 놓은 것처럼 둥그렇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넌골 [골] 논골 건너 편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골짜기 이름이다.

논골 [마을] 산 중턱에 논이 많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5가구가 있다. 작은논골과 큰논골이 있다. ‘답동’이라고도 한다.

답동(畓洞) [마을] → 논골

뒷골 [골] 통골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골짜기 이름이다.

먼드래골 [골] 논골 너머 왼쪽으로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등 너머 멀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사휴게소 뒤쪽에 있다.

반송쟁이 [터] 마을 입구 삼거리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상 만드는 사람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밭기밭 [터] 통공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백장골 [골] 줄봉으로 가며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백정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 [터] 새로 개척된 터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예전에 여러 가구가 있었다.

수리취골 [골] 논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수리취라는 취나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승냥재 [고개] 소망 기도원을 지나서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고개에 승냥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영동고속도로 메내골이 나온다.

아랫거리 [마을] 현재 오원 저수지 아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주막과 마방이 있었다.

웃거리 [마을] 현재 오원 저수지 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주막과 마방이 있었다.

짜작나무골 [골] 논골 초입 왼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자작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던져놓고 갔다고 한다. 이 골은 소사리 태오지와 통하는 지름길로, 이곳 사람들은 예전에 방아를 쥘러 이 길로 다녔다고 한다.

잼바골 [골] 논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줄바우골 [골] → 줄봉

줄봉 [골] 연화사 위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줄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줄바우골’이라고도 한다.

진골 [골] 대원정사가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텃골 [골] 통골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집터가 몇 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골 [마을] 골이 외통으로 쭉 뻗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호랭이잡은골 [골] 통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서 호랑이를 잡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원3리]

개미재 [고개] 양지말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고개 가리키는 것으로, 산이 아래로 향하면서 개미 허리처럼 찢록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미재 [마을] 개미재 고개에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곰내미 [골] 쇠호랭이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곰이 넘나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관터 [터] 양지말쪽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역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나라바우 [바위] 전재를 올라가며 왼쪽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라님이 이 바위에서 쉬어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골 [골] 전재 약수터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큰다리골과 작은다리골이 있다.

달밭골 [골] 쇠호랭이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동백나무골 [골] 여내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백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서골 [골] → 동서죽은골

동서죽은골 [골] 삼꽃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서 둘이 나물 뜯으러 갔다가 이 골에서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서골’이라고도 하며 작은동서죽은골과 큰동서죽은골이 있다.

독새골 [골] 마을 입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목내미 [터] 여내골 위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엔 이곳에서 버스를 탔다고 한다.

봉담 [못] 안흥면과 우천면 경계에 매화산이 있는데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늙은 부모를 모시고 나무장사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 하루는 나무하러 갔다가 이상한 새를 만나서 쫓아다니다 날이 어두워졌다. 그새 산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은 곳을 봉담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상한 새가 필경 봉황일 것이라는 뜻에서 봉담이라 지었다고 한다. 다음날 이 새가 또 나타나서 자꾸 쫓아가다 한곳에 이르니 꽃이 활짝 핀 매화나무밭을 이르렀다. 이에 이곳을 매화산이라 한다. 그래도 새가 계속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계속 따라가니 새는 안 보이고 신선들이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신선들이 바둑을 두던 자리를 신선봉이라 한다. 바둑 두는 것을 보고 있던 농부가 신선들이 없어지자 자신도 집에 갈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도끼자루가 썩었다고 한다. 집에 와보니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삼 년째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식구들을 이해시키고 곰곰히 생각하니, 새덕이라는 별판을 지나서 매화산을 거쳐서 신선봉을 갔다 온 것이었다. 새덕은 새의 덕으로 신선을 만나 삼 년을 굶었어도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지당골 [골] 여내골로 들어가 왼쪽 마지막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삼꽃골 위에 있으며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꽃골 [골] 산지당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꽃-삼을 베면, 구덩이를 파서 먼저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돌을 얹은 후 불을 지핀다. 나무가 다 타서 돌이 달궈지면 나무로 자리를 만들어 삼단을 올려놓은 다음 풀을 덮고 다시 흙을 덮는다. 달궈진 돌 주위를 돌아가면서 구멍을 내어 물을 부은 후 다시 구멍을 막는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돌에서 발생한 김이 삼을 익힌다. 삼이 익으면 개울에 담궈다가 껍질을 벗기

어 길쌈을 한다. 이렇듯 구덩이를 파서 달군 돌에 삼을 찌는 행위를 ‘삼곶’이라 한다.

쇠호랭이 [골] 여내골 안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호랑이가 사람을 마을에서 물어다가 이 골짜기에서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선봉 [산] 매화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①넓적한 바위가 두개 있는데, 장기관과 바둑판을 그려놓고 장수가 건너 뛰어 다니며 바둑과 장기를 번갈아 두었다고 한다. ②신선이 바둑을 두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차골 [골] 전재를 올라가며 중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이 이곳에서 살 때 웅덩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 ‘아차’ 하면서 넘어져 다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마을] 개울 건너에 있는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내골 [골] 전재를 올라가며 오른쪽 첫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유래는 모른다. ‘예언골’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수레넘이로 왕이 넘어갈 때 이골로 갈지 모른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예언골 [골] → 여내골

오원 [마을] 이 마을에서 원님이 다섯 명이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저수지 건너편에 묘가 있었다고 한다.

음지말 [마을] 음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응달말’이라고도 한다.

응달말 [마을] → 음지말

전재 [고개] 오원에서 안흥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전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면에서 다른 면으로 물건을 운반할 때 면 접경까지 물건 운반하여 갖다주는 것을 ‘전체짐’이라 한 까닭에 전재라고 한다.

준기골 [골] → 준기죽은골

준기죽은골 [골] 여내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준기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준기골’이라고도 한다.

중재 [고개] 전재 중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탑둔지 [터] 코레스코 콘도 앞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탑이 하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윤영선 덕 마당에 그림이 새겨진 바위가 하나 있는데 마구할미라 한다.

혼인바우골 [골] 개미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서로 가까이 마주보고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사이를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을 정도로 넓다고 한다. 예전에 이 바위에서 노총각이 장가들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둔리(龍屯里)

본래 안흥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재울, 논골, 왜지곡, 들운이를 병합하여 용둔이라 했다. 전설에 의하면 치악산 구룡사에 있던 용이 모두 등천을 했는데, 눈이 먼 용 한마리가 등천을 못하고 이곳 용둔에 머물렀다고 해서 용둔이라 한다. 1973년 행정관할구역 개편으로 우천면에 편입되었다.

가는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가늘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골재 [고개] 안용둔에서 갑천면 구방2리를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마을에서는 구방리를 개골이라 한다.

공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곽재 [마을] 용둔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광대네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광대싸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대논골’이라고도 한다.

광대논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광대가 와서 놀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광대네골’이라고도 한다.

노루종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노루를 많이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논 두 마지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달룽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달룽이 많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더랭이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돼지울 [마을] 용둔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정승이 날 묘자리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이 곳에 묘를 쓴 사람의 자손이 돼지처럼 번창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장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장을 새기는 나무인 회양목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들운이 [마을] 용둔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등지 [마을] 용둔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길이 좁고 벼랑이 높아서 등을 산쪽에 바짝 붙이고 가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다.

등지고개 [고개] 오재울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등지로 가는 고개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등지벼루 [벼랑] 등지에 있는 벼랑을 가리킨다.

뒤골 [골] 못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막골 [골] 못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막혀서 붙여진 이름이다.

못골 [마을] 용둔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대곡 [골] → 밀에골

무릉곡 [골] → 물언골

물언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쓸만한 묘자리가 없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릉곡’이라고도 한다.

미안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나무꾼에게 들켜서 미안해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밀에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밀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대곡’이라고도 한다.

뺏나무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뺏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섬밭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섬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재밀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통목이 [마을] 용둔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나무로 수통을 놓아 눈에 물을 대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용둔 [마을] 용둔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용둔의 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옛짐자리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눈이 있었는데 벼 생산량이 지게 여섯 짐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소리바우골 [골] 광재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위에 오소리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재곡 [마을] → 오재울

오재울 [마을] 용둔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까마귀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둔재 [고개] 오재울에서 안용둔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용둔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용내미재 [고개] 오재울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용이 넘어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물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물골 [골] 못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초입에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푼은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움집이 있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고개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웃고개에 있는 골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나무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나무골 [골] 오재울 석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저고리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고 저고리를 나무에 걸어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산골 [골] → 쥐이산골

쥐이산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쥐 이빨처럼 생긴 산골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산골’이라고도 한다.

지심터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직골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바르게 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매기네미터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진매기네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최서방네골 [골] 오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골 초입에 최서방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텃개 [골] 안용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집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치고개 [고개] 오재울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갑천면 구방리 한치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항리(牛項里)

마을 지형이 소의 목처럼 생겼다고 하여 쇠목, 우항(牛項)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재울, 물언지, 모란, 새말을 병합하여 무네미 위쪽이 되므로 상수남리(上水南里)라 하다가 1940년에 현재의 우항리로 고쳤다.

[우항1리]

가마봉 [산] 마을 뒤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이 가마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화마을 [마을] 정부시책에 의해 현대식으로 새로 형성된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다.

소세바우 [바위] 서낭당 밑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의 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 마을에 원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는데, 매일 찾아드는 손님에 귀찮음을 느낀 부인이, 때마침 탁발하러 온 한 노승에게 하소연 하자, “저 바위를 깨트려 버리면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리라” 하므로 그의 말대로 바위를 깨트리니, 그 날부터 손님이 끊어지는 동시에 가세가 기울어져 결국 망해 버리고 말았다 하는데, 그 바위를 깨트릴 때 그 속에서 피가 흘러 나왔다고 한다.

쇠목 [마을] 마을 지형이 소의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고개 [고개] 우항1리와 양적리 경계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 진을 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항2리]

구용골 [골] 백달리 역골 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형태가 소 구유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구용골과 큰구용골이 있다.

노적봉 [산] 구룡굴 옆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봉우리가 노적을 쌓은 것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대미원천 [하천] 마을을 가로 지르는 하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의 상대리와 하대리를 예전엔 상대미원리, 하대미원리라 부르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돌턱거리 [터] 모란가기 전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엔 이곳으로 물이 흐르고 반석이 있어서 놀기도 좋았으며 서낭당도 있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면화버덩 [들] 우항1리 위에 위치한 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목화를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내 [마을] → 모란

모란 [마을] 우항2리 6반에 해당되는 마을로, 예전에 둔내로 넘어가는 길목으로 넓은 광장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별신을 치루었는데 이때 씨름, 화투 등도 했다고 한다. ①마을에 못이 있어서 물안이라고 했는데 변해서 모란이라고 한다. ②모퉁이 진 곳에 마을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내’라고도 한다.

못골 [골] 물언지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조그마한 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언지 [마을] 경로당이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항2리 3, 4반에 해당된다. ①물이 귀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호랑이가 이곳에서 사람을 물어서 쇠호랭이에서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살구촌 [마을] 물언지에 있는 작은 부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살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마곡 [골] → 삼밭골

삼밭골 [골] 수재울에 있는 작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삼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마곡’이라고도 한다.

상수남리 [마을] 우항1,2리를 가리키는 옛 마을명이다.

새말 [마을] 오원1리 밑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나중에 새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말땀’ 또는 ‘신촌’이라고도 한다. 우항2리 6반에 해당된다.

새말땀 [마을] → 새말

수재곡 [마을] → 수재울

수재울 [마을] 우항2리 1,2반에 속하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말 휴게소 주위 마을과 앞의 마을이 이에 속한다. 그 유래는 모른다.

신촌 [마을] → 새말

우내(隅內) [마을] → 모란

울목정 [터] 경로당 부근을 가리키는 것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월 [골] 수재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골은 옷자월 아래에 있는 골은 아랫자월이라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정금리(鼎金里)

본래 안흥면의 지역인데 정금산(鼎金山) 밑에 있으므로, 쇠김, 또는 정금(鼎金)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숲, 어둔이, 발화골을 병합하여 정금리라 하였다. 1973년 행정관할구역 개편으로 우천면에 편입되었다.

[정금1리]

가래나무골 [골] 어둔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래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갈밭골 [골] 어둔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넘어가면 갑천면 포동리 저고리골이 나온다. 갈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내고개 [고개] → 고락고개

고락고개 [고개] 정금리에서 갑천면 포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장수와 군사가 이곳에서 고락을 같이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내고개라고도 한다.

낯은터 [골] 넘어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내정금(內鼎金) [마을] → 안말

너러지골 [골] 넘어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너러지골과 작은너러지골이 있다.

넘어뜰 [마을] 정금1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안말 너머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적바우 [바위] 쇠김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적을 쌓은 것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막바우’라고도 한다.

논골 [골] 넘어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에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누더기골 [골] → 쇠깎

당계산 [산] 정금리 민속보존회관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만대월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머우나무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머위라는 풀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막바우 [바위] 쇠깎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명매기라는 새가 이 바위에서 살아 붙여진 이름이다. ‘노적바우’라고도 한다.

물애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박수고개 [고개] 쇠깎에서 안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밤나무골 [골] 어둔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큰 밤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장아터골 [골] 어둔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병목거리 [마을] 정금1리 1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이 병의 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터’라고도 한다.

불당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산지당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살개월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생계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선바우 [바위] 쇠깎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6년 전 장마에 넘어졌다고 한다.

성재안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있는 바위가 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이재 [고개] 어둔이에 있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쇠깎 [마을] 정금1리 4,5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금광, 은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예전에 천석꾼이 살았는데, 그 집에 손님이 자주 오는 까닭에 며느리가 힘이 들자, 탁발 온 스님에게 손님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을 물은 즉, 마을에 있는 소처럼 생긴 바위의 콧등을 깨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자 손님이 끊기고 집안도 망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 마을은 추운 겨울에도 바람이 심하지 않아서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녀도 춥지 않다고 하여 ‘누더기골’이라고도 한다.

신배나무골 [골] 어둔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신배나무골과 작은신배나무골이 있다.

아랫두레이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말 [마을] 정금1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안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정금’이라고도 한다.

양지말 [마을] 정금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둔이 [마을] 정금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마을이 산으로 둘러 쌓여 해가 잘 안 들어 마을이 어둡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왕이 이곳을 지나 갔다고 해서 어답이라고 하던 것이 음이 변하여 어둔이가 되었다.

역밭 [밭] 어둔이에 있는 밭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역에서 관리하던 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소리바우 [바위] 아랫두레이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위에서 오소리가 새끼를 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네미고개 [고개] 양짓말에서 쇠깎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용이 이 고개로 넘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밀 [마을] 정금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움골 [골] 안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움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두레이 [골] 양지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미터골 [골] 넘어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장터 [마을] 정금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장이 서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병목거리’라고도 한다.

정금산 [산] 쇠깎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진밭골 [골] 어둔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긴 밭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진밭골과 작은진밭골이 있다.

태산등 [골] 양짓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정금2리]

골안 [골] 응달말에 있는 큰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마을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렁말 [마을] 정금2리 4,5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우뚝하게 구렁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넓적바우 [바위] 골안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숲 [마을] 정금2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예전에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숲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쇠골 [골] 대숲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무쇠말등 [산] 밀말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왜정 때 일본 사람들이 무쇠로 만든 말 모양의 말뚝을 이 산에 박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밀말 [마을] 정금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모른다.

바라골 [마을] 큰터와 대숲에 걸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밤나무골 [골] 밀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밤나무골과 작은밤나무골이 있다.

산전리고개 [고개] 정금리에서 산전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전리 가는 고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새면골 [골] 바라골 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어둔이와 통한다.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셋담 [마을] 정금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사이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명골 [골] 대숲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송지골 [골] 골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썰골짜기 [골] 골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형태가 썰기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앵두나무골 [골] 골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여우박골 [골] 셋담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의 유래는 모른다.

웃나무배기 [골] 골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웃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골 [골] 대숲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움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골 [골] 밀밭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마을] 정금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대숲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점말 [터] 하궁리와 정금리 사이에 있는 곳으로, 예전에 사기를 굽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중메산 [산] 밀밭에 있는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 중앙에 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둔지 [밭] 큰터에 있는 밭을 가리키는 것으로, 땅이 찰흙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진독골 [골] 밀밭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터 [마을] 정금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화서나무골 [골] 골안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어서, 그 시체를 이 골에서 화장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궁리(下弓里)

원래 안흥면의 지역으로, 활마루(궁중리) 아래쪽이 되므로 아래활마루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함현, 당하, 율둔, 당상, 봉우를 병합하여 하궁중리라 하다가 1967년 줄여서 하궁리로 고쳤다. 1973년 행정관할구역 개편으로 우천면에 편입되었다.

[하궁1리]

검은동굴 [굴] 움치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는 해가 잘 안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돌고개 [고개] 샘미둔지에서 현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둔내면 삽교리를 개척했다는 안삽교가 원주에서 불일을 보고 현천으로 가는 길에 호랑이 새끼를 “고돌”에 끼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호랑이 새끼를 정패랭이골에 사는 정패랭이가 살려줬다고 한다.

고돌고개 [고개] 하궁 저수지 위에 있으며, 샘미둔지에서 둔내면 현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고개 길이 곧게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돌고개’라고도 한다.

고매골 [골] 호병매기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동묘지골 [골] 이 골에 마을의 공동묘지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곽씨미골 [골] 예전에 이 골에 곽씨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령버덩 [터] 황고개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기령이란 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래나무골 [골] 유죽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단지골 [골] 송곳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 모양이 단지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상 [마을] 하궁1리 2반에 속하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낭당 위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숲 [당] 당상과 당하 사이에 있는 숲과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하궁리 마을 사람이 다같이 당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1리에 있는 사람이 지낸다. 음력 정월 초하루 새벽에 당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황씨를 모신다고 한다.

말구리 [골] 황고개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말이 굴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먼골 [골]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무개골 [골] 호랭이바우 앞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랑이가 개를 물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무개골과 큰무개골이 있다.

박달골 [골] 유죽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박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우 [산]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예전에 봉화를 올리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샘미둔지 [마을] 하궁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샘이 나는 곳에 묘를 써서 붙여진 이름이다.

셋땀 [마을] 황고개에 있는 마을 일부로, 현재 기도원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 골 사이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바우골 [골] 절터버덩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속세미골 [골] 무개골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송곳봉 아래에 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송곳봉 [산] 산이 송곳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선바우 [바위] 하궁 저수지 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선들이 놀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발자국이 있다고 한다.

심밭골 [골] 이 골에 가삼이 잘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탕골 [골] 고매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서 약물이 나와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마을] 당상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외발자국골 [골] 이 골에 집을 새로 짓고 이사 온 첫날밤에 호랑이가 부인을 물고 한 발자국으로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 집을 바로 헐었다고 한다.

우무골 [골] 이 골을 통해서 황고개로 갈 수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움치골 [골] 약물탕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이 골에 움집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너미골 [골] 용이 이 골로 넘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죽골 [골] 움치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에 대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움지말 [마을] 당상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나무골 [골] 다래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작봉 [산] 이 산에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봉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던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버덩 [터] 봉우 절터골에 있는 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패랭이골 [골] 고들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씨가 이 골에 살았는데 패랭이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풍바우 [바위] 신선바우 위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가 병풍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폭포수골 [골] 봉우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폭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랭이바우 [바위] 정패랭이골에 있는 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호병매기 [골] 선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호리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고개 [고개] 궁중리에서 하궁리 본부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흙 색깔이 다른 곳보다 진한 황토색을 띠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황고개 [마을] 하궁1리 3반에 속하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황고개에 있는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흙봉 [산] 이 산에 돌이 없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궁2리]

가래나무골 [마을] 하궁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가래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이라고도 한다.

개나미네집골 [골] 가래나무골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황개네미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너래골 [골] 병방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노장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당하(堂下) [마을] 서낭당 아래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양지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석두둑 [마을] 하궁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병방골 [골] 울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부처골 [골] 부처를 모셨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평토골 [골] 황개네미네 큰집이 살았다고 하며,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실골 [골] 원대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섬바우골 [골] 울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소터골 [마을] 하궁2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승지골 [골] 안진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진장골 [골] 골이 짧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내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골 정상에 올라가면 형성 앞내가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지말 [마을] 하궁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래나무골’이라고도 한다.

용구메골 [골] 앞내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용구라는 사람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울둔 [마을] 하궁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원대이 [골] 용구메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응달말 [마을] 하궁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응달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졸줄이골 [골] 너래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푸산골 [골] 울둔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하대리(下大里)

본래 안흥면의 지역으로, 대미원(大美院) 아래쪽이 되므로 아랫대미원, 줄여서 하대면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전당골, 구륵을 병합하여 하대미원리(下大美院里)라 하다가, 1937년에 현재의 하대리로 고쳤다. 1973년 행정관할구역 조정으로 우천면에 편입되었다.

갈밭골 [골] 사태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갈이 많고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륵 [마을] 하대리 5반에 해당되는 마을로, 예전에 구룡사가 이곳에 있었는데 빈대로 인하여 현재 치악산으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도 절이 있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절 이름과 관련하여 마을명이 지어졌다고 한다.

구운(九雲) [마을] → 구륵

노일 [마을] 하대리 4반에 해당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단시대골 [골] 구륵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는 커다란 밭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당골 [골] 구륵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덕고개 [고개] 구륵에서 상대리 메내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덤바우골 [골] 움터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바위가 있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뒷골 [골] 구륵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뒤골과 작은뒤골이 있다.

밤나무골 [골] 샘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본부락 [마을] 윗모루와 새말땀을 함께 아우르는 마을명으로, 마을이 하대리 중심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붕어소 [소] 붕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태골 [골] 험한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산사태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살구나무골 [골] 구륵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살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실재 [고개] 상대리 삼실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새말뚝 [마을] 마을이 늦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쌈골 [골] 덩바우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큰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당거리 [터] 예전에 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장골 [골] 중산골 맞은 편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형이 송장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역밭 [들] 구룡에 있는 커다란 밭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오얏모루 [마을] 예전에 10여 호가 있었는데,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폐촌이 되었다.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모퉁이에 마을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고 있다. ‘윗모루’라고도 한다.

윗모루 [마을] → 오얏모루

용고개 [고개] 구룡에서 본부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룡소에서 용이 나와 이 고개를 지나 구룡사로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룡소 [소] 구룡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곳에서 용이 나와 용고개를 지나 구룡사로 갔다고 한다. 예전에는 소가 깊어서 명주꾸러미 반이 풀릴 정도로 깊었으나 지금은 흙으로 다 메워졌다고 한다.

움터골 [골] 송장골 밑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전당(錢塘) [마을] → 즈당이

중산골 [골] 구룡에 있는 골짜기 중 하나로 갈밭골 위에 있으며, 큰중산골과 작은중산골이 있다. 그 유래는 모른다.

즌당이 [마을] 하대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돈이 많은 부자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즌당이고개 [고개] 하대리에서 산전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초당거리 [터] → 서당거리

큰골 [골] 구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을에서 제일 큰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험한골 [골] 구룡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험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보자]

- (이병만, 남, 70세, 두원리 토박이)
- (최돈협, 남, 75세, 두원리 토박이)
- (이 철, 남, 77세, 두원리 토박이)
- (정상시, 남, 71세, 문암리 토박이)
- (손진강, 남, 65세, 문암리 토박이)
- (김기원, 남, 66세, 문암리 토박이)
- (이병두, 남, 83세, 문암리 토박이)
- (권도식, 남, 65세, 백달리 토박이)
- (강병철, 남, 68세, 범주리 토박이)
- (전병수, 남, 57세, 범주리 토박이)
- (강수길, 남, 75세, 범주리 토박이)
- (박구성, 남, 73세, 범주리 토박이)
- (전석준, 남, 86세, 둔내 태생으로 13세에 산전리로 이주)
- (정인석, 남, 68세, 공근 태생으로 3세에 산전리로 이주)
- (김종만, 남, 88세, 산전리 토박이)
- (한옥순, 여, 75세, 산전리 토박이)
- (이기호, 남, 70세, 상대리 토박이)
- (원현구, 남, 87세, 송한리 태생으로 30세에 상대리로 이주)
- (정호창, 남, 84세, 상대리 토박이)
- (김종철, 남, 71세, 갑천 태생으로 9세에 상하가리로 이주)
- (최기섭, 남, 71세, 상하가리 토박이)
- (김용식, 남, 45세, 양적리 토박이)
- (임영복, 남, 50세, 양적리 토박이)
- (임형순, 남, 70세, 양적리 토박이)
- (홍종식, 남, 67세, 오원1리 토박이)
- (전병수, 남, 65세, 평창 태생으로 10세에 오원2리로 이주)
- (박상호, 남, 71세, 오원3리 토박이)
- (신덕순, 남, 71세, 평창 태생으로 52년 전에 오원3리로 이주)
- (함문호, 남, 76세, 용둔리 토박이)
- (홍경식, 남, 70세, 용둔리 토박이)
- (최유수, 남, 64세, 용둔리 토박이)
- (박순모, 남, 57세, 용둔리 토박이)

(이재섭, 남, 72세, 둔내 태생으로 20세에 우항1리로 이주)
(권영목, 남, 72세, 우항2리 토박이)
(이병환, 남, 65세, 우항2리 토박이)
(김종선, 남, 63세, 우항2리 토박이)
(정음전, 여, 76세, 정금1리 토박이)
(이계범, 남, 63세, 정금1리 토박이)
(원용재, 남, 54세, 정금1리 토박이)
(양중하, 남, 69세, 정금1리 토박이)
(이병태, 남, 68세, 정금1리 토박이)
(이계동, 남, 67세, 정금1리 토박이)
(안재호, 남, 44세, 정금2리 토박이)
(원학기, 남, 69세, 하궁1리 토박이)
(원홍섭, 남, 80세, 하궁1리 토박이)
(안호순, 남, 80세, 하궁1리 토박이)
(이용주, 남, 65세, 하궁1리 토박이)
(원태규, 남, 68세, 하궁2리 토박이)
(강태규, 남, 53세, 하궁2리 토박이)
(한광희, 남, 79세, 하궁2리 토박이)
(김선경, 남, 75세, 상하가리 태생으로 60년 전에 하대리로 이주)
(박기도, 남, 63세, 하대리 토박이)